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S&P 500, 메가캡 강세에 역사적 고가에 근접

Key Takeaways

-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시가총액 격차 1%대
- 증권거래위원회(SEC), 11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
- 우라늄 가격 16년 만에 최고치인 파운드당 92달러를 상회

변화요인

- **미 증시는 메가캡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. S&P 500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며 새로운 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 키워.**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등 다른 빅테크도 강세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. 금일 37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10년물 입찰은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된 가운데, 목요일 발표 예정인 12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관망심리 커져.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해프닝으로 전일 4만 8천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4만 6천달러를 하회한 반면, 이더리움이 5% 넘게 상승. (다우 +0.5%, 나스닥 +0.8%, S&P500 +0.6%, 러셀2000 +0.04%)
- **Fed Speaks:**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최근 의미있는 인플레이션 진전을 보았지만 '2% 수준'은 아니기 때문에 '당분간' 제한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와 인플레이션이 2%로 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. 한편, 며칠 전 양적긴축(QT)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의 의견에 대해서는 '아닌 것 같다'고 답해 최근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는 역레포(RRP) 잔고의 소진 시점과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(BTFP) 등에 대한 후속 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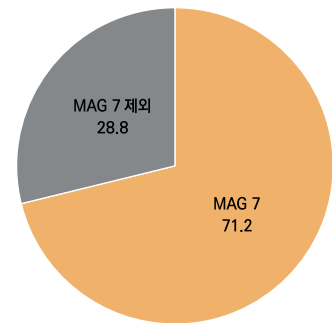
특징종목

- **엔비디아(NVDA, +2.3%)**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. 엔비디아의 칩 제조회사인 TSMC의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8.4%, 전월 대비 14% 감소했지만 늘어나는 AI 칩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급 칩 패키징(CoWoS)을 두배로 늘릴 계획을 재차 확인. **메타플랫폼(META, +3.6%)**은 미즈호에서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약 18% 상향 조정하자 강세. **아마존(AMZN, +1.6%)**은 프라임 비디오 및 MGM 스튜디오 부문에서 5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. **인튜이티브 서지컬(ISRG, +10.3%)**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4분기 잠정 매출 소식에 강세. **레나(LEN, +3.5%)** 연간 배당금을 주당 1.5달러에서 2.0달러로 늘리고 약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. 반면, **츄이(CHWY, -5.7%)**는 1200만주가 넘는 오버행 이슈로 인해 하락.
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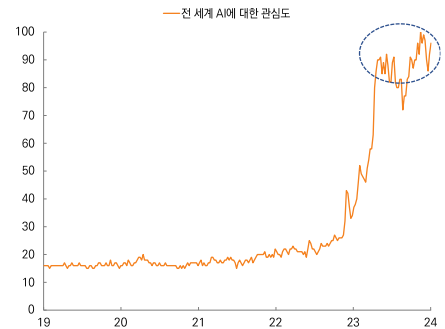
- **미 에너지정보보청(eia)**은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134만 배럴 증가해 약 68만 배럴 감소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WTI는 전일 대비 하락 기록. 그러나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와 리비아 사하라 유전의 생산 중단은 하방을 제한.
- **우라늄 선물** 가격은 파운드당 92달러를 상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.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우라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.
- **글로벌 운송 비용**을 측정하는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인 BDI는 3거래일 동안 11% 넘게 하락하며 지난 해 11월 13일 이후 최저치인 1664 포인트를 기록

그림 1. 시총 상승 기여도(10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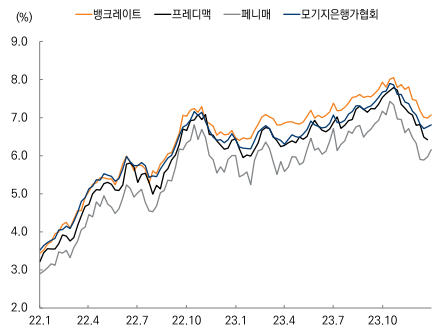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2. 전 세계 AI에 대한 관심도



자료: 구글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3.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
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Market Snapshot

주요 ETF			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-1.3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0
클린테크 ETF (CTEC)	-1.1	중형 가치주 ETF (IWS)	+0.1
소매업체 ETF (XLY)	+0.8	소형 가치주 ETF (IWN)	+0.2
온라인소매 ETF (EBIZ)	+0.2	대형 성장주 ETF (VUG)	+1.1
미국 인프라 ETF (PAVE)	-0.7	중형 성장주 ETF (IWP)	+0.4
핀테크 ETF (FINX)	-1.3	소형 성장주 ETF (IWO)	+0.0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-0.9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-0.1
클라우드 ETF (CLOU)	+0.1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-0.2
사이버보안 ETF (BUG)	+1.8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-0.2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-0.8	미국 국채 ETF (IEF)	-0.2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-0.7	하이일드 ETF (JNK)	+0.2
바이오섹터 ETF (IBB)	-0.7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3
로봇&AI ETF (BOTZ)	+2.5	물가연동채 ETF (TIP)	-0.1
반도체 ETF (SMH)	+0.1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-0.1

US Sector Index				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커뮤니케이션	250.60	+1.2	+2.7	+5.5
IT	3,391.17	+1.0	+3.5	+2.7
경기소비재	1,405.16	+1.0	+1.9	+2.6
산업재	951.74	+0.5	+1.1	+3.6
헬스케어	1,644.44	+0.4	+1.7	+7.1
부동산	248.82	+0.1	+0.4	+5.0
금융	628.13	+0.0	+0.7	+4.9
유틸리티	327.50	-0.1	-0.0	+2.5
필수소비재	768.87	-0.1	+0.4	+4.2
소재	527.38	-0.2	-1.0	+2.6
에너지	622.93	-1.0	-5.3	-0.0

글로벌 FICC 동향							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1.37	-1.3	-2.0	Dollar Index	102.392	-0.2	-0.1
브렌트유	76.80	-1.1	-1.9	EUR/USD	1.0969	+0.3	+0.4
천연가스	3.04	-4.9	+13.7	USD/JPY	145.77	+0.9	+1.7
금	2,027.80	-0.2	-0.6	GBP/USD	1.2739	+0.2	+0.6
은	23.07	-0.1	-0.4	USD/CHF	0.8512	-0.1	+0.3
알루미늄	2,232.50	-0.8	-3.5	AUD/USD	0.6699	+0.2	-0.5
전기동	8,370.50	+0.0	-1.7	USD/CAD	1.3379	-0.1	+0.2
아연	2,495.50	-0.3	-3.5	USD/RUB	89.6194	-0.1	-2.2
옥수수	459.50	-0.1	-1.3	USD/BRL	4.8930	-0.3	-0.5
밀	610.75	0.0	+1.6	USD/CNH	7.1838	-0.0	+0.2
대두	1,236.50	-1.0	-3.2	USD/KRW	1,320.10	+0.3	+1.2
커피	181.15	-1.6	-2.7	USD/KRW NDF1M	1,317.25	-0.1	+0.7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4.028	+1.5	+11.2	스페인	3.175	+1.5	+16.7
한국	3.347	+3.2	+1.2	포르투갈	2.849	+2.1	+16.9
일본	0.586	-0.5	-2.8	그리스	3.312	-0.6	+20.9
독일	2.212	+2.4	+18.8	이탈리아	3.843	-0.7	+14.1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